

The Key IX.

'존중'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일은 해놓고도 욕을 먹는다.

1.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의 의미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의미이다. 하늘 문이 열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다.

[사도행전 13:22]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문이라는 물리적 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체'가 중요하다. 따라서 하늘 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다.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강도에게, 도적질하는 자에게, 다른 마음 또는 계획을 갖고 있는 자에게, 누가 문을 열어주겠는가? 하늘에서 반역을 도모했던 사탄은 하늘로부터 쫓겨났다(요한계시록 12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인간 아담을 미혹해서 두 마음을 품게했다. 결국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다시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2.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3:20]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런데 특징은 예수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신다. 주인은 문을 열어주기 위해 누가 문을 두드렸는지 확인할 것이다. 확인을 해보니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확인하는 순간, 문을 열지 않을 수 없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문을 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 그리고 존중함의 마음이 가득한 분이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숙함이 바탕이 된 '인격적 관계'를 말한다. 인격적 관계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존중하신다. 그래서 강제로 그분의 권위와 힘을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다. 문을 두드리시는 태도가 바로 '인격'이 담보가 된 '존중의 마음'이다.

예수님에게 있는 초월적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혀있는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열 수 있으셨다. 그리고 부서진 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자신의 권위와 힘 앞에 복종시킬 수 있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만약 그렇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문을 여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존재는 그 당시를 장악했던 왕 중의 하나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향력은 오늘날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향해 스스로의 문을 열고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리적 힘과 능력으로 통치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시는 것이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편에 서기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형식적으로 어떤 강압에 못이겨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3. 존중의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얻는다.

'존중'의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마음을 얻는데 있다.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다. 성경에서의 대표적 인물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라 할 수 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보여준 태도의 핵심은 다윗을 '존중'하는 마음이었다.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세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다윗을 세웠다.

[사무엘상 18: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빌립보서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했다'고 요나단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마음이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나만큼 여기는 마음'이 아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월등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보여주었던 존중의 마음이다.

다윗을 향해 존중의 마음을 보였던 요나단의 축복을 보라. 요나단도 이미 아버지 사울의 왕의 지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예감했을 것이다. 이미 세가 다윗에게 기울어진 것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울의 가문은 다윗에게 '역적'의 가문이 되고,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가문으로 살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난 후에, 스스로를 개처럼 여겼던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받았던 은총을 생각해 보라. 다윗이 원수의 가문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주었던 이유는 단 하나, 요나단 때문이었다.

[사무엘하 9:7] ~ "겹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다윗을 향해 존중의 마음이 있던 요나단, 그가 받았던 은총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가 죽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존재는 다윗의 마음안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 영향력은 자신이 돌볼수 없는 아들 므비보셋의 삶에 은총으로 나타난다.

4. 종교심만 가득한 율법주의로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고 말했던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신앙은 하늘 문, 사람의 문 뿐만 아니라, 모든 문을 닫아버렸다. 그들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 나보다 남을 아래에 두는 갑질의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다. 그들의 판단과 비판은 모두 맞는 말이다.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맞는 행동, 맞는 말을 하는데도 왜 그들은 어떤 영향력도 없는 것일까? 그리고 왜 어떤 하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 모든 것이 옳고 그림만 따졌던 그들의 신앙을 보는 '피로도'가 엄청나다. 그들의 지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백성들의 피로도가 느껴진다. 기쁨이 없다. 형식만 가득했다. 형식이란 마음이 빠진 껍데기를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렸던 형식적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하늘은 닫혀있었고, 백성들의 마음 또한 닫혀있었다.

5. 존중의 마음이 없는 옳고 그림의 피로도

(1) 기독교는 옳고 그림을 따지는 곳이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다. 오늘날 교회안에 '사랑과 존중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비판, 판단, 옳고그림만 따지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두 맞는 말이다. 모두 옳은 말이다. 내 말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대상과 이슈가 언제나 있어야 한다. 세상의 구조가 바로 이와같다. 세상의 힘은 누구의 말이 더 정당하고 옳으냐를 증명하는데에 있다.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세상을 다스린다. 예전에 힘을 얻었던 세력이 잘못하면 그것을 책잡아서 새로운 세력이 일어난다. 모든 것이 경쟁이다. 비판이다. 내가 옳다는 주장과 소리로 가득하다.

저마다 다 맞는 말을 한다. 나름대로의 합리적 논리가 있고, 근거도 있는 주장들이다. 그런데 맞는 일과 주장을 바라보는 피로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모두가 자신이 맞다고 주장한다. 틀린 사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이성과 논리와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통시키려 한다.

이런 모습은 문을 아주 굳건하게 닫고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려는 것과 같다. 자신의 주장을 더 강하게 관통시키려 할수록, 상대방은 더 굳건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굴복시키려는 힘으로 물리적 환경은 제압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의 마음'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로이다. 사랑이 떠나고, 옳고 그름의 주장만 남아있는 고린도교회가 보여주는 피로도는 엄청나다. 매일 문제이다. 소망도 없고, 희망의 소식은 없다. 매일이 갈등이며 자기의 파가 옳다고 말하는 주장들 뿐이다. 이런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려는 존중의 마음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친다.

(3) 존중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여는 '존중이라는 열쇠'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셨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오는 아이들에 대한 태도이었다.

[마태복음 18:3-4]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여는 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합당한 자들의 기준을 말씀하신 사실이 놀랍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구체적인 존중의 정의이다. 존중이란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는 성숙한 마음이다.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자기자신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모든 기적이 남을 세우는데 있었다.

6. 존중의 마음을 경작하기

(1) 듣는 마음과 배울 수 있는 마음

남을 가르치려 하지말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듣기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기경해야 한다.

(2)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는 훈련을 하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3) 예수님이 보여주신 존중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일

그 분은 언제나 먼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피상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이것이 결국 모든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임을 명심하라.